

2021년 08월 15일

#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3편 1~2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시편 33편 1~2절]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342장(통395) 너 시험을 당해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다니엘 11장 20~35절(구약p.1253)

20.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21.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2.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3.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24.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여 주며 계락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5.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락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26.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흠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리라
27.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8.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29.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30. 이는 깃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32.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3.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34.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 ◎ 말씀선포 / 시련의 목적

하나님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갈등과 다툼으로 점철된 어둠의 장소임을 아십니다. 그 뿐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시련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의 사역자로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같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은 결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119편 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과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혹은 경제적인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당신의 자녀를 강하게 하십니다.

- 시련과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는 참된 성도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참된 성도들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장간의 쇠가 담금질을 거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성도들이 받는 잠깐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온전하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초를 더욱 든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무런 고통이나 시련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당신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다니엘이 받은 예언의 말씀처럼 세상은 서로 속이고 배반하는 곳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칼날과 사로잡힘과 약탈 같은 시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보다는 세상을 거슬러 사는 성도들은 더욱 많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 성도들은 더욱 강하게 다듬어져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본문 32~33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성도는 고난보다는 안락을, 시련보다는 편안한 삶을 탐닉하는 인생의 소욕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오직 부와 명예를 얻는 것만이 복과 은혜라는 잘못된 가르침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에 기꺼이 직면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

빠르게 하려 함이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난당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이 권면했던 것같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고난 속에 주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일들로 강하게 하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인내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당신의 자녀를 정결케 하십니다.

-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더욱 정결한 존재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아 더욱 정결함과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극한 환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줍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론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으로 돌아서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택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빚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관원들에게 잡히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르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향한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라는 사명을 맡기심으로 베드로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시련의 기간은 성도들이 더욱 정결하게 빚어지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속에도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련의 용광로를 지나면 옛 사람이 제거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24절에서 사도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먼저 옛 모습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금광석이 불 속에서 연단되어 비로소 정금으로 빚어지듯이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시련 속에서 연단되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될 것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지나면 새롭게 변화된 자신을 보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384장(통43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 폐 회 / 주기도문